

지나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개	2016 침례 인수
0명		12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이번 주 자매집회는 연휴관계로 없습니다.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3차)

- ① 일 시 : 5.3(화)~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하나님 정하신 길 실행 훈련 안내

- ① 일 시 : 5.13(금)~15(주일요일)
-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 ③ 회 비 : 숙박 81,000원, 출퇴근 29,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④ 신청 및 문의 : 5.3(화)까지 집사실로 신청

2. 대학생 초청 쉬임 집회 안내

- ① 일 시 : 5.20(금)~22(주일요일)
-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 ③ 회 비 : 숙박 44,000원
- ④ 신청 및 문의 : 5.10(화)까지 이현구 형제(010-3254-9798)

3. 국제 가을 장로 훈련 및 쉬임 여행 안내

- ① 일 시 : 10.6(목)~8(토)
- * 국제 쉬임 집회 10.9(주일) 오전 10시~오후12시
- * 출국 및 귀국 예정 : 10.5(수)~10.13(목), 변경될 수 있음

◆ 지나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4.18.(월) ~ 2016.04.24.(주일))

지역	1지역 (80명)				2지역 (102명)				3지역 (103명)				4지역 (123명)				5지역 (88명)				6지역 (58명)				7지역 (24명)				계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화	목	토	일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20	14	15	11	9	11	10	16	15	10	12	13	19	7	26	17	17	27	16	14	7	9	9	21	13	15	12	14	9	24	26	21	17	14	17	11	16	13	11	578
기도	7	9	5	4	3	2	5	5	6	9	9	8	13	10	6	9	4	3	9	5	5	6	4	2	7	13	12	8	13	6	3	5	5	6	6	6	226			
그물	10	9	10	9	6	1	2	5	7	6	13	13	7	14	14	10	9	6	2	3	10	5	7	6	9	6	18	12	15	8	9	9	8	11	7	296				
아침부흥	11	8	7	7	4	3																																	153	
어린이	11				20				12				21				9				8				6				87											
아빠노래									11				2												5				18											
중고등부	8				3				11				10				10				8				3				53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5. 01. 16-18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왕국 복음

눅4:4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

왕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다. 신약은 심지어 왕국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4장 43절 중국어 화합본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다'로 번역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의 뜻에 따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역 신약 성경은 '하나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다'로 번역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들의 왕국이라 부르고, 보통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복음은 왕국을 중심 목표로 함

오늘날 기독교에 전파된 복음은 거의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용어만 사용할 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그 이름만 알 뿐 그 실재는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 천당을 중심적이고 중요한 항목으로 전파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약의 첫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자세히 읽어보아도 여러분은 복음이 천당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약 전체에서 복음의 목표가 사람을 천당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구절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신약의 거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복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 목표로 하길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여 천당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여 왕국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즉,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Kingdom of Heavens)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천당의 문제가 아니라 왕국의 문제이다. 게다가 성경은 '천당'을 말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천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왕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는 강하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천당이라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왕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왕국과 천당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천당은 다만 한 장소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방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작의 말이 여러분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바란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 인상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이가 되었고 여러 해 동안 집회에 참석해 왔지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아는 하나님의 복음은 단지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면일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얻고 각종 영적 인 은혜와 축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심적인 것, 곧 하나님의 복음이 앞에서 말한 각종 유익을 가리킬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할

신약 시대인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 3:2)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오실 때 그분께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4:17)였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란 사람들을 천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지 사람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다. 회개는 더욱 사람들을 왕국 안으로 이끈다. 후에 주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각 회당에서 전하신 것은 죄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더욱 왕국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다(9:35).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24:14)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 단락에서 하신 말씀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 주된 의미는 이 왕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됨으로 그들 모두가 이 왕국을 알 때 비로소 끝이 온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도행전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정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강론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1:3). 오순절에 이르러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2:1-41, 8:1-4). 사도행전은 그들이 각처로 가서 전파한 복음이 모두 왕국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8:12, 14:22).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20:24-25).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28:31). 더 나아가서 서신서에 이르러 로마서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14:17, 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더럽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전 6:9-10, 갈 5:19-21, 엡 5:5). 골로새서 1장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래 속해 있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인 사탄의 왕국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가 있는 왕국에서 구출되어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할 뿐 아니라 야고보도 그것에 대해 언급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약 2:5). 베드로의 서신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길 것입니다."(벧후 1:11, 원문 참조). 전문적으로 생명을 말한 요한도 하나님의 왕국을 말했다. 그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요 3:3, 5, 원문 참조). 요한계시록을 쓸 때 시작에서 그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1:9, 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절반 정도 기록했을 때 그는 또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11:15)라고 말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이기는 이가 모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한다(20:4, 6). 결국 그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의 때에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한다(22:5하).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왕국임

신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왕국이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나 생명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왕국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당신을 구원하여 당신의 죄들이 용서받게 하고, 당신을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신을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빛이 이미 말살되고 매몰 되었다. 당신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되었지만 왕국에 대해 당신은 아직도 별 인상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을 구원하여 한 왕국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주된 목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을 이 왕국 안에 두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신 목적도 당신을 이 왕국 안에 두기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도 당신을 거듭나게 하여, 이 왕국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요 3:3, 5). 당신은 먼저 이 왕국에 속한 생명을 얻어야만 이 왕국 안에 살 수 있다. 또한 이 왕국 안에서만 그것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왕국 안에 살게 하실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구원 안에 있는 풍성은 오직 한 가지, 곧 당신을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 왕국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가 죄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며 왕국임을 반드시 보아야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시며, 생명을 당신에게 주시고 그분의 영을 당신 안에 두시어 정결하게 소생시킨 목적은 당신을 구원하여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당신을 이 왕국 안에 두기 위한 것이며, 이 왕국 안에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왕국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왕국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들의 용서와 생명을 보았고 각각 은혜와 축복을 보았지만 이 왕국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줄 아주 무거운 부담이 있는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 왕국이란 무엇인가' 1장에서 발췌〉

활력 그룹의 실행

살전2:7 오히려 우리는 여러복 가운데서 은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수고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됩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나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당신을 분배함으로 당신의 구원을 확산하기 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보좌를 만집니다. 주여, 당신을 부릅니다. 주여, 당신이 제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저와 함께 가소서."

그러한 기도를 한 후에, 동반자들과 함께 나가서 수고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가서 수고해야 한다. 이제 누군가를 얻는가 못 얻는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수고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권익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증가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커다란 기대를 갖지 않고 다만 신실하게 수고하고 분투하기를 갈망하신다. 온 세상을 침례 줄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택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고 분투하려는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세 시간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시간의 심본의 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 세 시간 정도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세 시간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주님께 드려야 한다.

매주 그들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소중히 품어야 한다.

그들을 우리의 아이로 여기면서 매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소중히 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성장하고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떠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새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나감으로 몇몇 사람들을 이끌어 돌볼 수 있다. 몇 사람을 얻었으면 그들을 꾸준하고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먹여야 한다. 이것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세 시간을 일생동안 주님께 분별해 드려야 한다. 이 시간은 정규적인 교회 집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먹이며 온전케 하여 성숙된 자로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온 일생동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기를 요구한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분투한다면 당신의 수고를 통해서 매년 2명의 남아있는 열매가 교회 생활에 더해질 것이다. 오늘 당신의 나이가 30세라면 70세가 되었을 때 80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도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많은 영적인 손자들을 볼 것이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당신의 신실함과 수고와 분투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당신이 두세 달 정도만 흥분되고 불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분투하는 길이다.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씨로 뿌리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온 일생 동안 주님께 대한 서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의 교회가 증가될 것임을 확신하라. 합당한 방식으로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역사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분투하며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역사할 것이다. 그것은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회복과 교회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분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7과 304-307p에서 발췌〉